CPR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정치수배

정치수배(1); 6공 정치수배 해제농성 보고 및 이후 계획; 6공청치수배해제를 위한 전국정치수배자대책위원회, 1993

CPh.d.1

사랑방 자료 2-13
72

인권 자료실
등록
B6 41

6공 정치수배 해제농성 보고 및 이후 계획

1993년 8월 30일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

차 례

1. 수배 해제 농성 경과 보고

2. 6공 정치 수배 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3. 위촉장

4.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 결성 제안서

5.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탄원서

6. 수배자 신상명세 및 수배내역

7. 수배자의 밤 기획안

8. 반려 신문 기사

문민정부 출범!

민주화와 통일운동 과정에서 수배되어 길게는 5년동안에 지리한 사회적 고립과 어두운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강요당한 수배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 6공 정권의 정치수배에 의해 상처입은 인권을 회복하고 모든 이와 함께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민정부에 대한 수배자의 바램과 희망은 이처럼 그어떤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검찰의 발표는 이같은 정치수배자들의 인권회복과 정상적인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꿈이 현실로 될 수 없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좌절과 실망은 수배자들에 의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배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정치수배의 참혹함 인권유린을 더이상 계속되게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상황은 문민정부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는 사실에 합의하고,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실한 수배자들의 호소와 이에 국민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화답하는 가슴뜨거운 과정은 이렇습니다.

경 과 보 고

2월 :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 수배해제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서 수배자 존재를 알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며 연세대에서 10여명의 수배자가 일주일간 단식농성 전개

4월 : 20일 검찰에 의해 발표된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내용에 실망

6월 : 광주에서 7명의 수배자들이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전개하며 정치수배 해제 촉구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검찰청 항의 방문 전개

7월 : 그간의 수배해제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전국적 조직 건설과 보다 획기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5일 광주에서 각 지역의 대표가 모여 조직결성을결의하고 전국 각지에 숨어 있는 수배자들을 모아 8월 9일부터 서울에서 집중적인 농성을 전개하기로 함

8월 : 9일-수배자 총회를 갖고, 정치수배재 대책위 결성
11일-기자회견 CBS(기독교방송)기사화
12일-신문광고(한겨레), 한겨레 한국일보 기사화
13일-서명작업
14일, 15일 범민족대회 장소인 한양대에서 청년학생 결의대회 시간에 참가하여 수배자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얻음.
모금운동 (약 60여만원) 서명작업(1,800여명)
16일, 17일 홍보물 제작, 배포
18일-수배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도우미 모임 발족(12개 대학 참여)
19일-청와대 엽서보내기 운동시작
20일-포스터제작 배포, 8.26일자 시사저널 및 뉴스매이커지 기사화

21일-서명운동 20,000명 돌파
　　성금 3,000,000원 돌파
22일-플래카드 부착, 걸개그림 전달식
23일-수배자의 밤 문화대공연 기획팀 구성
24일-제 2차 전국 수배자 총회 준비위 결성
25일-청와대 탄원서 작성
26일-협조요청서 발송, 검찰총장 면담요청서 작성
27일-각 단체 방문 지지 요청, 2차 홍보물 제작
28일-가족과의 만남(20여분의 가족, 친지들과 수배자들의 감격적인 만남)
　　민가협 어머님 방문해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
　　어머님들 아들들을 위해 뜻을 모으고, 할 일을 찾기로 결의
29일-한겨레 신문 기사
　　수배자 상호간의 살아온 얘기 시간
31일-수배자 총회(예정)

그동안 각계에서 보내준 지지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지지방문(하루평균 50여명)과 성금에 감사드리며 특히 하루빨리 저희들이 학교와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자기일 처럼 헌신해 나서고 있는 여러 어르신을 비롯한 각계 인사 우리 학형들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수배해제 축구대회', '수배자의 밤'등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여러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인권유린'에서 벗어나 '인권승리'라는 귀중한 성과를 얻어낼 것입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6공 정치수배 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6공 정치수배자 40여명은 장기간 수배생활로 지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서 8월 9일부터 22일째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을 시작한 지 20일 되는 날(8.28) 그동안 만나뵙지 못하던 "어머니, 아버지"등 가족과 수배자들이 상봉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수배기간중 상을 당한 수배자 동지들은 한편으로 기쁜 해후의 감격속에도 임종조차 하지 못한 불효에 대한 아픈 죄책과 회한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삼켜야 하기도 했다.

현재 정치수배로 도피중인 수배자는 정부의 발표(1993. 4. 20)에 따르면 약 200여명 가량이 된다. 지금 농성에 직접 간접으로 결합한 수배자 47명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수배자들이 아직도 문민시대의 환한 밤거리를 한몸 누일곳을 찾아 전전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 농성자 40여명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정치수배 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정치수배 해제는 유린된 인권의 복원이라는 점이다.

수배자들은 "공민권의 장기간 정지"를 경험하며 수배 전기간을 통하여 미행, 도청, 체포, 구금, 고문 등에 대한 심리적 강박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님 , 친지, 친구, 애인, 중고등학교 은사님등 주변의 모든 사람이 수사기관의 조사, 미행의 횡포를 경험하고 직장 상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당한다. 또한 수배 당사자는 사회적 인간의 기본 욕구인 가족, 친구 등 과의 만남을 봉쇄당하며 먹고 살기 위한 경제생활의 영위에 있어서도 자기신분을 감추어야 하기 때무에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의 검문 등 방해로 장례식장에 조차 참가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 (조정신-아버님상 정은철-어머님상) 또 아버님이 위중한 병환으로 위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수배의 몸이라는 죄 때문에 찾아뵙고 병간호 한 번 못하는 불효를 범하게 되며, 쓰린 오열을 혼자서만 부등켜 안아야 하는 것이다. (권오중, 아버님의 간경화증) 이처럼 수배자는 수배자체의 은밀하고 개별적 성격때문에 여론과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필설로 못할 인권유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수배'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벌이며, "창살없는 감옥"으로 표현되듯이 수감생활과는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정치수배 해제는 문민 정부의 "과거청산과 민주실현" 이념의 선결적 과제이다.

6공 정치수배는 "노태우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제 문민정부가 民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만큼, 문민정부의 이념에 조응하여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 현 문민정부가 이전 민정당등 3당 합당의 결과에 일정 힘입은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그 토대가 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항쟁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주도세력과 어깨를 걸고 함께 싸운 바 있다. 또한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당한 정치수배는 이를 기본 이념으로 천명하는 문민정부에서 더이상 수배조치를 지속할 까닭이 없으며, 오히려 군사정권의 과거 청산의 시금석으로서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수배자들에게 문민정부의 '신한국 건설'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치수배 해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공직자, 군인, 정치인 등에 대한 사정작업과 금융실명제등 개혁조치에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6공 이전 시국사건 때문에 제적된 제적생들의 복적조치에 공감과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정치수배자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2학기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을 계속할 준비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정은철 연대 85, 복적 조치는 거의 모든 수배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수배의 지속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휴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등록이 가능한 수배자들도 수강신청을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정현실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시급한 수배해제 조치로 수배자들의 못다한 학업에의 뜻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의 민주와 통일에의 열정이 문민정부의 "신한국" 건설에 아낌없이 투여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서도 정치수배해제는 시급하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과거청산과 맞물린 문제로서 애초 정치수배의 실정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과 집시법등 악법이 "남북합의서"등의 발효로 법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으며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미루어 보아도 냉전적, 독선적, 정권안보용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수배의 지속은 "자가당착"이며 "시대착오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민정부는 이러한 군사독재적 과거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신한국 건설, 통일조국 건설에 일로매진해야 한다. 더이상 과거 때문에 발목을 묶이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정치수배의 발생배경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백보양보 한다 하더라도 사면복권의 형평성의 입장에서 수배해제는 이루어 져야 한다.
정치수배는 "양심수"란 정치현상의 선행사건으로서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심수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

참고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규약에 따르면

양심수란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함이 없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의 표현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때 그 폭력성의 유무는 정부의 발표나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양심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법률의 실질적인 입법목적이나 법률 집행위 도가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에 위배될 때 그 법을 어긴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거나 쟁취하기 위하여 행동한 결과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위시에 양심수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사법적 절차과정에서 인권을 침해 받았거나 행동한 결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모두 양심수라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등의 악법으로 구속, 수배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잇으며 따라서 사면복권의 문제에서도 함께 고려되고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정치수배자의 경우 장기간의 정치수배에 대한 즉각적 해제조치가 당연히 취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

8월 28일 수배자의 가족 상봉의 날
31일 전국 정치수배자 총회
9월 7일 정치수배 해제 촉구대회
* 수배자 어머니 청와대 방문
9일
. 정치수배 해제 촉구 및 기금 마련 1일 주점, 찻집, 서명운동
. 청와대 정치수배해제 탄원서 제출
. 홍보사업 전개
20일
25일 수배자의 밤 (문화공연 및 결의의 시간)

위 촉 장

수신 :

발신 :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수배자 대책위원회"

내용 :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사회 대책위위원"위촉건

1. 현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서는 6공 (노태우정부) 시절 정치수배를 당하였던 수배자들이 지난 8월 9일부터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저희는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수배되었고, 문민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 길게는 5년에서 1년까지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는 '공민권의 정지, 수사망의 압박과 체포 구금 고문 투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신의 강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아버지 어머니의 상중에도 수사기관의 검문, 방해등으로 임종조차 보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또한 어떤 수배자는 아버님께서 간경화증 악화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뵙고 간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5. 저희는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탄생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수배해제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0일 검찰의 "자진출두, 최대관용"이라는 발표를 접하면서 커다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6.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양심과 지조로 험난한 수배생활을 버텨온 저희에게 '자진출두, 반성문 강요'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청산되어야 할 군사정권의 통치방식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7. 6공정치수배의 지속은 비록 일부이지만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사면, 석방, 조치에 비하여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신한국을 건설할 문민정부의 성격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전제입니다.

8. 따라서 저희는 정치수배의 일괄적 해제는 문민정부가 표방한 "과거청산과 민주사회", "변화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민개혁의 중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9. 저희는 한시바삐 정치수배라는 창살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못다한 학업을 끝내고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 이에 저희는 저희들의 수배의 부당함과 기본인권 유린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정치수배의 해결을 위하여 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11.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적으로 활동하시는 귀하단체 및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수배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임을 믿기에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12. 부디 "6공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원회" 위원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93년 8월

성명 :

주소 :

서명 :

'사회대책위원회'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배자들의 신상명세와 수배내역은 별첨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치수배자 대책위"와 "사회대책위" 기본활동에 관한 별첨자료를 아울러 첨부합니다.

[6공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원회] 결성 제안서

1. 서-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원회 결성의 취지

문민정부의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군사정권 아래에서 부당한 정치수배를 당한 수배자들은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쫓는 자들의 그림자에 짓눌려 어두운 밤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남짓의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도피생활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인 '공민권'이 정지되고 남의 신분으로 살아가야하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사망의 그물을 피하고자하는 고통, 그리고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 가까운 사람을 만날수 없으며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도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의 고통은 정치수배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화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서는 6공(노태우정권)시절 수배되었던 정치수배자 30 여명의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무기한 농성 "이 93년 8월 9일 부터 지금 까지 22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수자모"(수배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모임)가 결성되어 이들의 활동을 여러가지로 돕기도 하고 수많은 지원 방문단의 격려와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농성이 언제 끝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수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현정권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자수 하면 최대한 관용"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기는 하였읍니다. 그러나 파렴치범이 아닌 정치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활동 때문에 수배된 정치수배자들에게 있어 "자수와 반성문"이란 애초 자신의 양심과 정치적 신념에 따른 활동(민주주의의 실현과 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어려운 수배 생활을 헤쳐온 이들의 지조와 양심을 짓밟는 가혹한 발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는 이들에게 미더운 후견인으로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현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창구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과 조직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6공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원회"는 외로운 정치수배자들의 후견인이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중재자가 될것입니다.

2. 6공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1)현재 까지 여론과 언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치수배의 문제를 국민에 알리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공개하는 작업으로서 -사회대책위원회 결성의 기자회견,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광고게재등 홍보사업의 전개.

(2) 사회대책위는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탄원 서명과 범국민 서명 작업의 수행.

****"정치수배해제 탄원서"별첨, "범국민 서명 운동 용지"별첨

(3)청와대, 법무부, 검찰청등에 각계각층에서 받은 "수배해제 탄원서"및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명단 을 제출, 정치수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와 협상.

(4)소속 단체별로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업 을 전개하고 역량에 따라 투쟁에 대한 지지광고 게재.(1단 광고라도 개인 혹은 단체당 하나씩)

(5)기획사업으로 "수배자의 밤"행사를 준비하고 주최.

****수배자의 밤 기획안은 별첨

(6)기타 실정과 처지에 맞는 활동의 전개

3.6공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원회 조직체계와 구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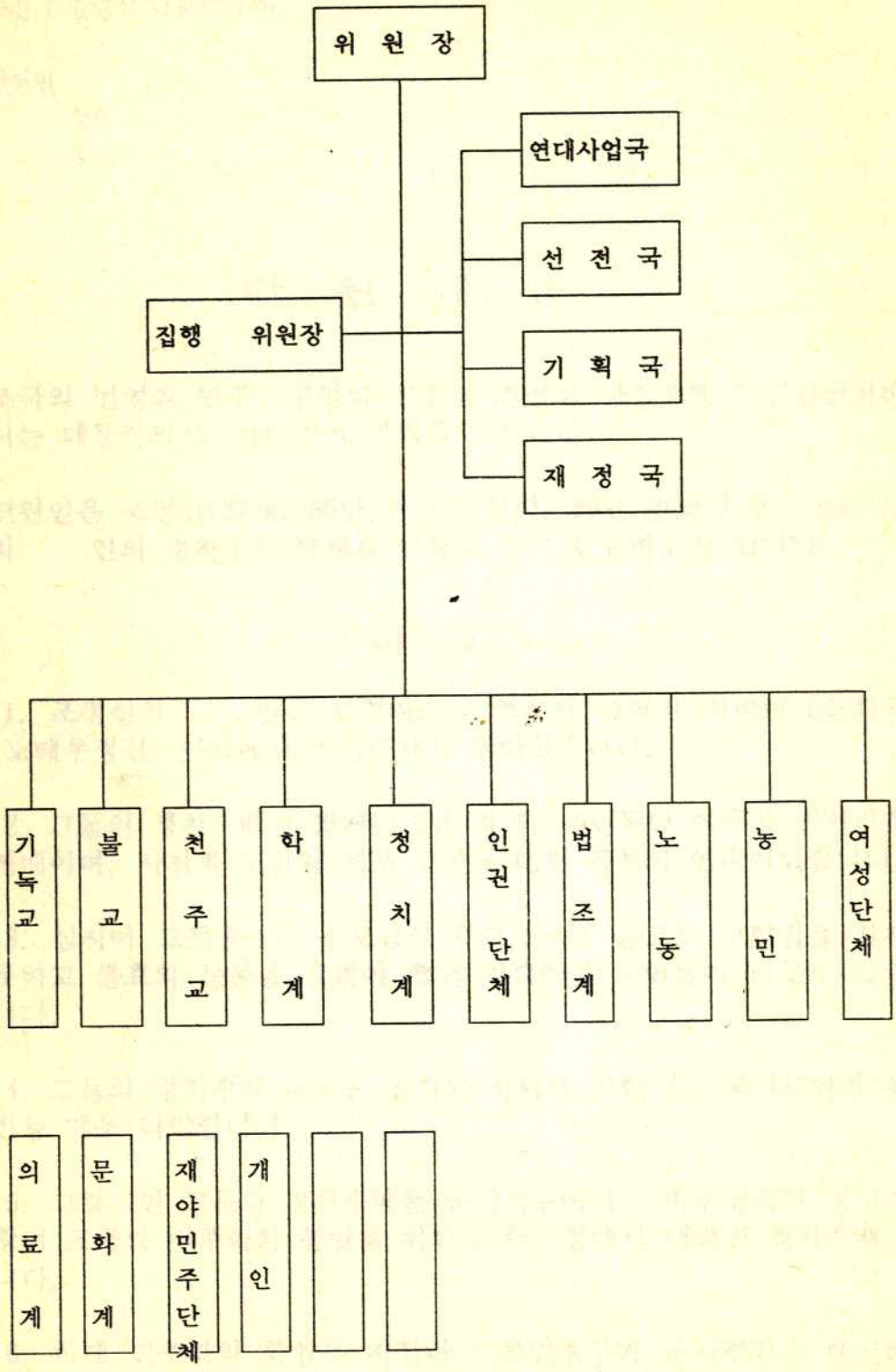
(1)대책위 구성 방안

현재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를 중심으로하여 광범위하게 구성한다. 대책위 위원이 되실분에게는 현재 정치수배자들의 투쟁경과와 현재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보고 드리고 대책위 위원 위촉장을 만들어 직접 찾아뵙고 부탁을 드린다. 특히 중앙 운영단위에 참여하실 어르신들께는 연대사업 담당자와 정치수배대책위 당사자중 책임있는 사람이 함께 찾아뵙고 인사와 부탁을 드린다.

이번 수배해제투쟁은 높은 차원의 정치투쟁이 아니며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회 대책위원회'는 사회부문 일부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구성되어서는 아니되며 수배자의 기본적 인권현실에 공감하고 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도록 준비되고 구성되어야 할것이다.

조직체계는 필요와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실제 일을 맡아 하실 동지, 선배들께서는 집행국에 직접 결합하여 구체적 직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과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결성 시기는 9.1 이전에 기본 사업이 완료되고 9.1결성 기자회견을 가질수 있도록 준비한다. 대책위원 인선은 부문 별로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수배해제 탄원서' 서명작업과 결합하여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조직체계


위 원 장
연대사업국
선 전 국
집행 위원장
기 획 국
재 정 국
기독교
불 교
천주교
학 계
정치계
인권단체
법조계
노 동
농 민
여성단체
의료계
문화계
재야민주단체
개 인

탄 원 서

수신 : 김영삼 대통령 귀하

탄원인

성명 :

주소 :

탄 원 내 용

조국의 번영과 민주, 통일의 신한국 건설의 국정수행에 전심전력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인은 조정신(27세, 86년 전남대 입학, 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외 인의 정치수배 해제를 아래와 같이 탄원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조정신외 인은 별첨자료에 첨부된 내역의 의하여 6공화국(노태우정권) 아래에서 정치수배를 당하였습니다.

2. 그들의 정치수배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동안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이며, 사회적 고립과 체포 고문에 대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3. 심지어 그들중에는 부모님의 부고소식을 듣고도 고향집을 찾지 못하고 불효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가슴아픈 사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4. 그들의 정치수배 내역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국가보안법 위반등 매우 다양합니다.

5. 그렇지만 그들의 정치수배는 군사정권이라는 비정상적인 정치상황과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내려진 정치수배입니다.

6. 이제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문민정부가 군사정권을 대신하여 들어서서 신한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상황이 되었습니다.

7.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역적 분열과 계급, 계층적 갈등을 극복하고 범국민적 화합에 기초한 신한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 따라서 구시대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수배는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개혁과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또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문민정부 하에서는 과거의 인권 탄압이 인권의 승리로 되어 이들 모두가 새시대에 열과성을 다해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정치수배자들은 길게는 5년동안 모든 공민권을 박탈당한 채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으며, 창살없는 감옥의 괴로움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11. 그런데 93년 4월에 검찰이 발표한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라는 형태의 수배문제 해결 방법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12. 왜냐하면 정치수배 해결은 개인적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양산했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3. 또한 이런 검찰의 발표는 지조와 양심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치수배자들에게는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14.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정치수배로 인하여 중단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15. 그리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그들이 간직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을 신한국 건설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6. 따라서 본 탄원인인 6공정치수배의 일괄해제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지기를 탄원합니다.

첨부자료 : 6공 정치수배자 명단 및 수배내역

1993년 8월 30일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번호	이 름	학 교 (활 동 내 역)	수 배 내 역	서 명
1	조 정신	89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남대협 의장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투쟁	
2	권 오중	9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대협 제 1기 조통위위원장	북한 영화 상영 조국통일 촉진그룹 사건	
3	손 인호	92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서총련부의장 권한대행	범청학련 관련	
4	안 영민	91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대경총련 의장	91년 5월 투쟁 관련	
5	정 영훈	서울대학교 91년 졸업 91년 전대협 정책위원	91년 전대협 정책위 사건관련	
6	권 응상	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89	91년 6.3 정원식 총리서리 항의시위 관련	
7	정 철	외국어대학교 신 방 과 89	동일	
8	정 상용	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90	동일	
9	윤 영덕	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3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10	임 헌태	91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서총련부의장 권한대행	91년 강경대 열사 시위 관련	
11	이 철상	91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집시법, 폭력, 국보법 등	
12	윤 진호	90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90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90년 5월 투쟁관련	
13	박 홍근	92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국보법, 집시법, 선거법 등	
14	이 병철	9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3월 특수 공무집행 방해	
15	윤 종화	90년 영남대학교 학생투쟁위원장	90년 5월 투쟁	
16	정 은철	연세대학교 85 88년 서총련 정책위원장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임수경 방북 관련	
17	정 우식	91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범민족 대회 관련	
18	김 중철	영남대학교 90년 대경총련 정책위원장	90년 5월 투쟁	
19	김 억남	영남대학교	90년 9월 집회	
20	이 수찬	91년 한양대학교 사회부장	91년 5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번호	이 름	학 교 (활동내역)	수 배 내 역	서 명
21	김 영하	92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전대협 조통위 위원장	범청학련 관련	
22	송 옥	92년 서울대학교 부학생회장	선거법 관련	
23	최 홍재	고려대학교 신방과 4학년 91년 전대협조통위 권한대행	국가보안법	
24	송 인배	91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부울총협 의장	91년 5월 투쟁관련	
25	손 응희	부산대학교 88 부학생회장	89년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26	최 종해	91년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5월 투쟁 관련	
27	이 상진	부산대학교	91년 5월 투쟁 관련	
28	이 명곤	부산대학교 91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91년 박성희, 성용승 방북투쟁	
29	배 수창	92년 전남대학교 투쟁국장	집시법, 화염병 처벌법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30	정 보성	92년 전남대학교 공대회장	92년 총선관련 집회 및 시위주도 화염병처벌법	
31	박 선택	92년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여순대협 의장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32	강 찬선	92년 호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3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33	박 웅	92년 전남대학교 부학생회장	92년 5월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34	손 병호	92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부경총련 의장	92년 5월 인공기 게양 범청학련 건설	
35	송 진환	9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남총련 의장	92년 5월 인공기 게양 범청학련 결성	
36	김 정택	92년 고려대학교(조치원) 총학생회장, 충남총련 의장	범청학련 관련, 집시법	
37	이 광표	91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국가보안법	
38	박 동섭	92년 창원대학교 부학생회장	집시법, 폭력	
39	김 기석	90년 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40	김 형욱	91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전북학협 의장		

번호	이 름	학 교 (활 동 내 역)	수 배 내 역	
41	정 진웅	91년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42	이 태규	91년 전북대학교 투쟁국장	집시법	
43	김 상준	외대(용인) 86 용성총련 정책위원	집시법, 폭력	
44	장 용우	91년 인대협의장	집시법	
45	남 재현	91년 대구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46	유 봉식	89년 전남대학교 투쟁위원장	집시법, 폭력	
47				

수배자의 밤 행사 기획안

1. 취지 및 목적

(1) 수배해제 문제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범 국민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한다.
(2) 수배문제에 대한 범 국민적 지지를 과시하여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9우러까지 진행된 수배해제 투쟁의 성과를 총화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2. 기획방향

(1) 수배해제를 위한 사회대책위가 주관하는 행사로 기획한다.
(2) 사회지도급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기획한다.
(3) 운동 진영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한다.

3. 행사내용

(1) 1부행사
시작을 알리는 풍물
함께 부르는 노래 - 서총련 노래패
현장 인터뷰 - 슬라이드 상영 후 관객들과 수배 당사자들을 인터뷰(사회자)
(2) 2부행사
내빈소개
대회장 인사말 - 대책위 위원장
수배자 소개 및 대표 인사
가수들의 공연(1인당 3-4곡씩 2명정도, 노래와 수배문제에 대한 멘트)
미담발표(답지된 성금 발표, 농성과정에서 있었던 미담) - 사회자
슬라이드 - 수배자의 생활을 영상화(정치적 의미보다는 인권문제로 부각, 제작요)
김미화, 양원경 등 개그맨들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순서
촛불 전달 후 잔잔한 음악과 함께 결의문(시) 낭송으로 폐회

4. 행사준비

(1) 소요인원
사회 : 손석희, 백지연(2인중 가능하면 모두, 그렇지 않을 경우 1인 사회로)
무대보조 : 6명
안내데스크(티켓 및 방명록 관리) : 20명
장내 안내 : 20명
결의문 낭송 : 남, 여 각 1명
식전 노래 : 서총련 노래패
조명 : 추후 결정
풍물패 : 20명
슬라이드 관리 : 3-4명
(2) 연예인 섭외 - 대책위 연대사업국(민예총 등의 도움을 얻어서)
초청연예인 : 변진섭, 신형원, 정태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문성근, 김미화, 양원경등 섭외 가능한 연예인
(3) 행사기획 : 대책위 기획국, 서총련 문화국 일부

(4) 행사홍보 : 프랭카드, 안내팜프렛, 티켓, 광고 등
(5) 음향, 특수효과, 조명 등 - 대책위 기획국, 선전국, 서총련 문화국
각 국별로 준비와 관련된 기획안 제출

5. 준비 일정

	연대 사업국	기획국	선전국
8월 28일			
29일			
30일			
31일			
9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음향, 조명팀 섭외	
8일		프로그램 개발	
9일			
10일	사회자 및 출연진 섭외		팜프렛, 티켓, 포스터
11일			도안 및 문안 완성
12일		최종 기획안 완성	
13일			
14일			
15일			팜프렛, 티켓, 포스터
16일			순서지 발주
17일			
18일	무대 제작 및 장식		프랭카드 발주
19일			
20일			슬라이드 제작 완료
21일			
22일			일간지 광고
23일			
24일	리허설	연출 및 준비상황 점검	
25일	D-DAY		

6. 예산

슬라이드 제작비 : 2,000,000원

무대제작 및 장식

	대여비 :	1,000,000원
	인건비 :	500,000원
	바닥과 장식 :	500,000원
	소 계 :	2,000,000원

음향 및 조명(설비 및 기사, 발전차) : 1,500,000원

특수효과

	이미지 개폐기 :	700,000원
	꽃가루 발사기 :	350,000원
	리본 발사기 :	150,000원
	분수 불꽃 :	200,000원(100,000*2개)
	소 계 :	1,350,000원

홍보비

	포 스 터 :	500,000원
	팜 프 렛 :	350,000원
	순 서 지 :	100,000원
	프랭카드 :	200,000원
	광 고 비 :	1,500,000원
	티 켓 :	100,000원
	소 계 :	3,4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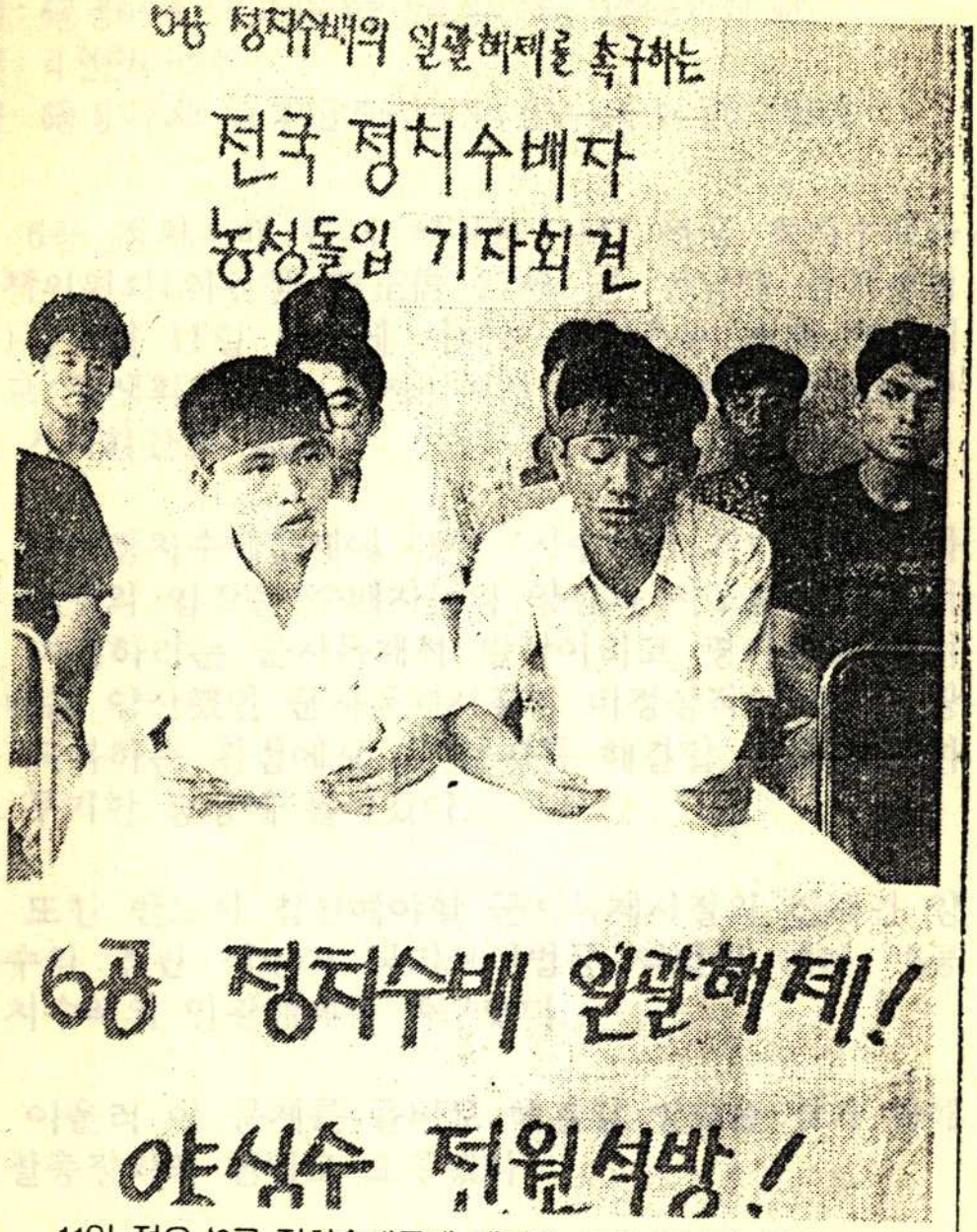
예비비 : 1,000,000원

총 계 : 9,750,000원

#수입

티켓판매 5,000원*10,000장 = 50,000,000원

스폰서비 2,000,000원



11일 정오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 대책위' 조정신 위원장(왼쪽)이 6공의 시국관련수배에 대한 일괄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윤섭 기자*

6공 정치수배자 농성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27·전 전남대총학생회장)는 11일 낮 12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 등을 촉구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보 도 자 료

1993년 8.11 12:00

발신 :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361-3645)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내용 :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촉구하는 전국 정치수배자 농성돌입 기자회견

1.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曺正信 27세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8월 11일 12시에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기자실에서 6공정치수배자 40여명과 기자회견을 갖고,

2. 6공 정치수배문제에 대한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수배자들의 양심과 지조를 개별화시켜 파괴하려는 군사독재적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정치수배를 양산했던 군사독재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3.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할 군사독재시절의 잔재인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등 악법의 개폐,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촉구했다.

4. 아울러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검찰총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첨부자료 1 :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기 자 회 견 문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며-

1. 6공 정치수배 문제는 수배자 개개인의 양심과 지조를 파괴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수배를 양산했던 비 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조국의 민주화에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내려진 수배조치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200여명의 6공(노태우정권) 정치수배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6공 정치수배 문제를 바라보는 검찰과 현 정부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관용이 무엇인지 보편적 기준도 없이 검찰의 잣대로 개개 사건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조와 양심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치수배자들에게 자수와 반성문, 그리고 각서를 쓰게하여 6공 정치수배자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수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군사독재적 발상입니다.

현 정부가 지난 30년간의 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려는 진정한 문민정부라면 수배조치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난 시대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치수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청산되어야 할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인 양심수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 그리고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300여명이 넘는 양심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유지시키는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제반 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6공 정치수배 문제를 결코 개개인의 신분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수배를 양산했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의 극복과 함께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악법철폐의 동일선상에서 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3. 6공 정치수배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하여 우리 대책위와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6공 정치수배자들은 문민정부로서의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치수배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된다면 개혁과 민주화의 과정에 동참할 의지도 있습니다.

현 검찰이 진정 문민정부의 검찰이라면 현재의 입장을 철회하고 군사독재 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정치수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정중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4. 검찰과 현 정권이 계속 현재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우리 대책위는 양심수 전원석방-악법철폐-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번호	이 름	학 교 (활 동 내 역)	수 배 내 역	서 명
1	조 정신	89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남대협 의장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투쟁	
2	권 오중	9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대협 제 1기 조통위위원장	북한 영화 상영 조국통일 촉진그룹 사건	
3	손 인호	92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서총련부의장 권한대행	범청학련 관련	
4	안 영민	91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대경총련 의장	91년 5월 투쟁 관련	
5	정 영훈	서울대학교 91년 졸업 91년 전대협 정책위원	91년 전대협 정책위 사건관련	
6	권 응상	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89	91년 6.3 정원식 총리서리 항의시위 관련	
7	정 철	외국어대학교 신 방 과 89	동일	
8	정 상용	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90	동일	
9	윤 영덕	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3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10	임 헌태	91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서총련부의장 권한대행	91년 강경대 열사 시위 관련	
11	이 철상	91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집시법, 폭력, 국보법 등	
12	윤 진호	90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90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90년 5월 투쟁관련	
13	박 홍근	92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국보법, 집시법, 선거법 등	
14	이 병철	9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3월 특수 공무집행 방해	
15	윤 종화	90년 영남대학교 학생투쟁위원장	90년 5월 투쟁	
16	정 은철	연세대학교 85 88년 서총련 정책위원장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임수경 방북 관련	
17	정 우식	91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범민족 대회 관련	
18	김 중철	영남대학교 90년 대경총련 정책위원장	90년 5월 투쟁	
19	김 억남	영남대학교	90년 9월 집회	
20	이 수찬	91년 한양대학교 사회부장	91년 5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번호	이 름	학 교 (활동내역)	수 배 내 역	서 명
21	김 영하	92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전대협 조통위 위원장	범청학련 관련	
22	송 옥	92년 서울대학교 부학생회장	선거법 관련	
23	최 홍재	고려대학교 신방과 4학년 91년 전대협조통위 권한대행	국가보안법	
24	송 인배	91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부울총협 의장	91년 5월 투쟁관련	
25	손 용희	부산대학교 88 부학생회장	89년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26	최 종해	91년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5월 투쟁 관련	
27	이 상진	부산대학교	91년 5월 투쟁 관련	
28	이 명근	부산대학교 91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91년 박성희, 성용승 방북투쟁	
29	배 수창	92년 전남대학교 투쟁국장	집시법, 화염병 처벌법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30	정 보성	92년 전남대학교 공대회장	92년 총선관련 집회 및 시위주도 화염병처벌법	
31	박 선택	92년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여순대협 의장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32	강 찬선	92년 호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3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33	박 용	92년 전남대학교 부학생회장	92년 5월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34	손 병호	92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부경총련 의장	92년 5월 인공기 게양 범청학련 건설	
35	송 진환	9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남총련 의장	92년 5월 인공기 게양 범청학련 결성	
36	김 정택	92년 고려대학교(조치원) 총학생회장, 충남총련 의장	범청학련 관련, 집시법	
37	이 광표	91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국가보안법	
38	박 동섭	92년 창원대학교 부학생회장	집시법, 폭력	
39	김 기석	90년 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40	김 형욱	91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전북학협 의장		

번호	이 름	학 교 (활 동 내 역)	수 배 내 역	
41	정 진웅	91년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42	이 태규	91년 전북대학교 투쟁국장	집시법	
43	김 상준	외대(용인) 86 용성총련 정책위원	집시법, 폭력	
44	장 용우	91년 인대협의장	집시법	
45	남 재현	91년 대구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46	유 봉식	89년 전남대학교 투쟁위원장	집시법, 폭력	
47				

"6공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신한국을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전국의 200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이 창살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국민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6개지역의 50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이 연세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해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신한국을 건설하려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수배해제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일은행 126-369140-01-001(예금주 : 조정신(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6공 학생정치수배자들은 14일까지 연세대학으로 모입시다(361-3645)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학생 정치수배자 대책위-

조정신, 정영훈, 권오중, 송인배, 권옹상, 정철, 정상용, 임헌태, 손인호, 박홍근, 김기석, 정우식, 윤진호, 이철상, 최홍재, 이광표, 윤혁, 김영하, 송욱, 정은철, 손웅희, 최종해, 하정우, 이상진, 이명곤, 손병호, 안영민, 윤종화, 김중철, 김억남, 송진환

'전대협동우회' 결성

제2회 전대협의 밤이 21일 오후 중앙대 대학극장에서 지난 87년부터 92년까지의 각 대학 학생회 직선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들은 이 행사에서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하고 '6공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조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종찬 기자

인터뷰/전대협 4기 학추위장 권오중씨

'거리의 양심수' 6공 수배자들에게 자유를

전대협 4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대협 4기 의장 권한대행 윤진호씨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의 위원장 권오중씨(연세대 총학생회장, 87학번)를 수소문 끝에 연세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보았다.

범민족대회 준비로 한창이던 연세대를 기자가 찾은 것은 지난 8월 11일.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이하 수배자 대책위)가 자신들의 수배해제 촉구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었다. 이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30여명은 바로 전대협 활동과 관련해 수배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전대협 3기의 조정신씨(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정은철씨(전대협 3기 정책위원장) 등의 얼굴도 보였고 전대협 4기의 윤진호씨, 권오중씨 등도 참가하고 있었으며 전대협 5기 의장 권한대행 이철상씨(서울대 총학생회장)와 전대협 6기 의장 권한대행 박홍근씨(경희대 총학생회장)도 있었다.

다음날 전대협 4기 학추위장 권오중씨(수배자 대책위 대변인)와 만났다.

—90년 10월 제1회 범민족대회 후 연고제 행사 때 '북한영화상영' 사건으로 수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배 이후 지금까지의 생활은 어떠했나.

"90년 하반기에 학원탄압이 심해져 11월쯤 학교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 대전으로 피신했다. 대전에서 막노동생활을 하면서 '밥'을 해결했고 곧이어 공장에 취직하여 생활하였다. 91년 말이 되어 다시 서울 근교에 와서 선반 기술을 배워 1년이 넘게 영세공장에서 선반일을 하였다. 친구들과는 물론 집안 식구와도 연락을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특히 나중에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수배생활이 더욱 힘들었다."

—움직이기도 힘든 수배자들이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

"93년 신정부 출범 후 6공과 단절을 선언한 현정권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겨울부터 나름대로 주위 동료들을 수소문하여 수배중인 다른 동지들과 수배해제 투쟁을 진행키로 마음먹고 그동안의 생활을 정리하였다. 3·6석방이 있기 전에 몇몇의 사람들이 수배해제 투쟁을 하였고 지난 5월에는 광주쪽 동지들이 거리에 나서 서명을 받고 학내 단식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던 동지들을 하나둘 연결하게 되었고 지금의 수배자 대책위까지 꾸리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6공 수배자 약 50~60명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가협의 자료를 보면 6공 정치수배자가 3백명 정도 된다. 우리의 농성에 많은 수배동지들이 참가했으면 한다."

—수배해제가 된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학교 졸업까지는 3학기가 남았다. 복학할 수 있으면 학교를 마치고 싶다. 그리고 군문제도 아직 풀지 못했는데 군대를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법신분을 가지고 하고 싶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그냥이라도 노동현장에 가고 싶다."

—30년 만에 민간정권이 수립되었다. 현정부의 성격에 대한 견해와 일련의 개혁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영삼 정권의 의의를 인정한다. 군사통치가 탈각되고 각종의 민간정부다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개혁조치들에 대해 환영한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평가와 잘잘못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선다. 국민이 원했던 것은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정책이 국민들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노 정권 말기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은 수배를 피해 다니는 것은 최소한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운동적 양심과 지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현정부는 6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정말로 과거와 단절하려면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던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한맺힌 이들이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와 바로 수배자들이다. 현정부가 군부독재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이 농성하고 있던 연세대 학생회관을 나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 언젠가는 이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조치 발표를 기대하면서 범민족대회 원천봉쇄를 위해 경찰 2만명이 비를 맞고 있는 연세대 교문을 빠져 나왔다.

15일까지다. 각 부문 당선작은 8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작은 광주직할시 서구 진월동 592번지 광주대학교 『청년광주』 교지편집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 062)670-2517.

열린사회 제1대학 수강생 모집

열린사회교육연구소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역사 등 각 분야의 양서를 읽고 저자나 관련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토론하는 「열린사회 제1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월 1~2권의 교재 도서를 제공받고 주1회 강의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방거주자나 강의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강의녹음테이프를 우송해주는 통신과정도 운영한다. 교재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소유냐 삶이냐』『분노의 포도』 등 50권이다. 문의전화 02)274-6606.

우리역사교실 12기 수강생 모집

구로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우리역사교실이 9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7시 구로청년회 교육관에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전봉준, 항일무장투쟁,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북한과 통일 등이다. 문의전화 02)863-9015.

정치수배자 무기한 농성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에서 정치수배 일괄해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연세대에서 벌이며 연락이 안 된 모든 정치수배자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연세대 총학생회 02)361-3642. 성금 모금 한일은행 126-369140-01-001 조정신.

사회진보학교 제1기 개강

민중정치연합 은평지부에서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7시30분에 서부사무실에서 사회진보학교(총13강좌)를 개설한다. 사회진보학교는 서대문 은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양을 제공하고 사회진보에 대한 올바른 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의전화 02)356-0863

전교조 노래경연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 경연을 실시한다. 때는 10월 31일(일) 오후 3시. 장소는 경희대 크라운관. 참가대상은 교사, 학생, 학부모, 여러 단체 및 일반시민. 신청은 10월 5일까지 전교조 문화국에 창작곡 악보 5매, 노래녹음테이프 1개, 참가자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02)364-3167. 365-3208.

정신대 연극 공연

정신대 문제를 다룬 연극 「소리없는 만가」가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학로 충돌2소극장에서 놀이패 한두레에 의해 공연된다. 이 작품은 올 4월 초연된 이후 70여회의 공연을 통해 2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고 이번 공연 후 미국 일본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입장료 8천원. 문의전화 02)764-5715

제2기 불교학당 개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 스님)에서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에 불교학당 강좌를 개최한다. 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불교사상 : 지선 스님(불교교육원 원장) △부처님 생애 : 법일 스님(문빈정사 주지) △불교문화사 : 이순규(불교문화연구가) △수행 : 정조 스님(만연사 주지) △불교상식 :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불교문학 : 진관 스님(미륵정사 주지) △불교예절 :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회비는 5만원. 문의전화 062)228-9098.

14 정치

실세 김덕룡 견제구 피해 외유?

한창 바쁜 때 파라과이로 떠난 김장관의 행보를 놓고 새 역할 부여설, 세력 갈등설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 정치

보선 참패 · 실명제에 이기택 대표 '失名' 위기

지도력 빈곤을 거론하는 비주류측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대표의 당내 위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22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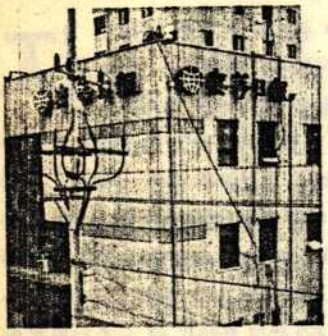
"재야 · 제도권 예술가 합치도록 유도하겠다"

李敏燮 문화체육부장관은 기업이 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짝짓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6 사회

6공 '정치 수배자' 35명 "차라리 감옥 가겠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얼굴 없는 사람'인 수배 대학생들이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인데….



28 사회

중앙지 비켜가는 '사이비 언론 정화'

정부의 사이비 언론 근절 방침에 지방 신문들이 수난을 겪고, 이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74 국제

美 보스니아 외교 돌팔매를 맞다

미 국무부 외교관 2명이 장관의 정책에 항의해 사표를 냄으로써 미국 외교의 도덕성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88 경제

중국 '거품 경제' 터지기 일보 직전

서양 언론의 과대 평가와 달리 중국 경제가 최근 무역 적자와 물가고에 금융 혼란까지 겹쳐 심상치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102 문화

주문 제작 되는 '솜사탕 영화'들

탈 충무로의 한 방편으로 〈결혼이야기〉등 젊은 세대의 풍속도를 회화적으로 그린 영화들이 줄을 잇고 있다.

4 독자편지
18 정치마당
76 93회 생일 맞은 영국 모후
77 러시아인의 천차만별 바캉스
78 유럽에 되살아나는 극우 망령
82 일본 핵무장과 한국 대응책
84 앙드레 퐁텐느 칼럼
92 해외경제
94 경제시평
101 보안 미흡한 컴퓨터 통신망
110 사람과 사람
112 시론/정치 가면도 벗기자

발행처/(주)IMI(우편번호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대표전화/738-3200. 팩시밀리/733-2506(업무용), 736-9543/(국내기사용), 738-0079(국제기사용). 사서함/서울 중앙우체국 645. 등록번호/다-792. 등록일자/1989.2.13 인쇄처/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1. 정가 2,000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 복사를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1년 정기구독료 78,000원 은행지로 3019001, 우편대체구좌 010017-31-1092006. 광고문의/773-576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본사/733-3330, 722-0760~2 팩시밀리/720-8112 서울회원사 773-3181, 팩시밀리/771-2864 지방지사/부산 : 633-0757 대구 : 256-0481 인천 : 421-3361 광주 : 522-0123 대전 : 632-4814 전주 : 78-0468 청주 : 67-0627 마산 : 92-4100 울산 : 44-9091 포항 : 42-0952 제주 : 57-1995 강릉 : 44-3400

'얼굴 없는 사람들' : 세상과의 단절, 계획할 수 없는 미래, 긴장된 생활에 지친 수배자들이 처음 한데 모였다.

"차라리 감옥 가겠다"

6공 '정치 수배자' 35명 농성 … '수배 해제' 호소·협상

자기들의 절박한 처지를 여론화하겠다고 농성장에 모여들었으면서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슬금슬금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있다. 자칭 정치 수배자.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그들은, 스스로의 표현대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다. 저마다 가슴을 치는 사연 한둘쯤 간직한 채 숨어 살아온 수배 대학생 35명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6공 시국 수배자 일괄 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으나 10여 명은 끝내 카메라를 피했다.

"수배자는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아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눈 딱 감고 자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듭니다.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가장 힘들어요." '6공화국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 수배자 대책위원회' 모임을 대표하는 조정신씨(89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 투쟁과 평양축전 참가 투쟁 관련자)의 말이다.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도피 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대개 노태우 정권 때 각 대학 총학생회장이나 전대협 간부를 지냈다. 이들 중에는 공안 당국이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물급도 더러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이철규씨 사인 진상규명 투쟁 사건(89년) · 임수경씨 방북 사건(89년) · 북한 영화 상영 사건(90년) · 강경대씨 시위 사건(91년) · 외국어대생 정원식 총리 폭행 사건(91년) 등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현상금만 해도 보통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선이다. 이들은 35명에게 걸린 현상금 액수를 다 합하면 족히 1억~2억원은 될 거라고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세상과 단절한 채 수사망을 피해 다니면서, 소련의 몰락과 오렌지족의 등장을 지켜본 세대이다. 세상은 따라가기조차 벅찰 정도로 급변하는데,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고립당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성장은 사실상 멈추었다. 특히 세상의 변화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수배자들에게는 더 증폭되어 다가온다. 문민 정부의 개혁이 지속되는 요즘은 여론의 관심권에서도 벗어나 말 그대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지금 붙잡을 이상도 사라진 데다가 말 그대로 '찢길 대로 찢기고 해질 대로 해진' 상태이다.

"더이상 도피 생활 못하겠다"

현재 농성 참가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 등 각계 각층에 자기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청와대 · 검찰 등과 수배 해제를 협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도저도 안되면 검찰에 집단으로 출두해서라도 수배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구속을 각오한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차라리 감옥에 가면 갔지 더이상 도피 생활은 못하겠다"는 게 이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수배자들은 자기네 처지를 얘기할 때 흔히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감옥에 갇히면 세상의 온갖 유혹을 포기하겠지만, 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가지 못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야 한다. 하루에 수십번 자수하고 싶다. 이때가 가장 괴롭다."

수배자 대표 조정신씨

배 생활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아는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수사기관에 동향이 포착돼 오히려 피해를 주기 일쑤이다.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

오랜 수배 생활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독특한 습관을 갖게 한다. 수배자는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민감하다. 그러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의심받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처하는 경우 애인이나 부모에게 전화할 때도 다른 도시로 옮겨서 전화한다. 공안 당국에 발신지가 포착되면 어김없이 수사망이 조여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전화 한 통 걸려고 해도 이처럼 번거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는 사람에게는 연락하지 않는다. 예전과 정반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는 기피한다.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만나야 할 때를 빼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6공 수배자 2백여명… 농성 합류자 늘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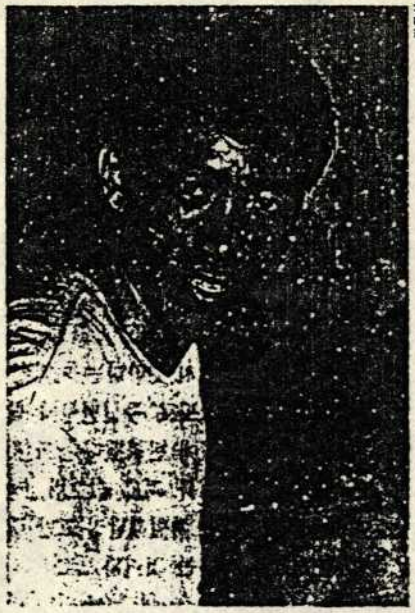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무료하기 짝이 없는 생활인데도 이상하게 감정은 풍부해집니다. 꼬박꼬박 일기를 쓰는데,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뻔히 알면서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가족을 찾아갔다가 검거되는 동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북한 영화 상영 사건으로 수배중인 권오중씨(90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전대협 조통위 위원장)의 말이다. 현재 농성중인 수배자들은 모두 노태우 정권 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이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 세상이 바뀌었지만, 아직 과거 정권에 의한 시국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원칙은 지난 4월20일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발표 이외에는 없다.

수배자들은 개인적으로 공안 당국에 투항하는 게 옳은지, 계속 버텨야 옳은지 서로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움직이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과 더이상 도피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이다. 이들은 모든 수배자가 한 자리에 모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6공화국 수배자는 대략 2백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앞으로 농성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지금 수배자가 수배자를 찾고 있다. ■

吳民秀 기자

도피 5년 "불효자는 웁니다"

정은철씨(29)는 임수경씨 방북 사건 관련자 중에서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다. 임종석·임수경 씨와 박종열씨(평양축전 준비위 정책실장)는 이미 실형을 살고 나왔으며 전문환씨(전대협 평양축전 준비위원장)는 아직 감옥에 있다. 정씨는 임수경씨 방북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성사시킨, 말하자면 전대협의 배후 조직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씨는 국내의 언론이 온통 임수경씨 방북 사건을 보도하느라 정신 없던 89년 7월 공안당국의 수사력



"어머님 임종도 못하고…" :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정은철씨.

이 그를 향해 조여오자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기약없는 수배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약 3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답사했다. 89년 9월말 전주 교동의 한 월세방에 여장을 풀 때까지 만화가게와 교회, 학교 등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그는 새마을 취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박종열씨와 함께 지냈다(박씨는 그뒤 90년말 대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생활 용구는 버너와 코펠이 고작이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짐을 싸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그는 여러가지 직업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생활기반이 잡히자 제법 큰 레스토랑에 웨이터로 취직했다. 이곳저곳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웨이터에서 주방보조를 거쳐 주방장으로 승진한 그는, 이제 양식에 관한 한 음식 색깔만 보고도 맛을 짐작하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

돈이 모이자 좀더 넓은 곳으로 세번이나 거처를 옮기고, 직업훈련원에 입교해 컴퓨터를 배우기도 했다(수배자는 6개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피 생활을 시작한 후 최상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안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91년 말 박종열씨가 검거된 것이다. 신문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안 정씨는 다시 빈몸으로 전주시를 빠져나갔다.

근거지를 잃는다는 것은 수배자들에게 큰 타격이다. 애써 모은 냉장고·텔레비전·컴퓨터 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조차 챙기지 못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다시 공안 당국의 수사력이 재가동된 시점이라 서울은 안전하지 못했다. 간신히 수원의 한 비디오테이프 케이스 제조 공장에 취직했다. 그렇게 힘겨운 수배자 생활을 버텨나가던 정씨는 92년 1월 '평생을 사죄해도 갚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그의 거처를 아는 한 지역 인사로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단 한번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그뒤로 집에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부음을 접한 거죠. 저 때문에 속을 끓이다 돌아가셨을 텐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식으로서 그가 한 일은 수의 사는 데 보태라며 연락이 닿는 사람에게 비축한 돈 50만원을 전해준 것뿐이었다. 그는 그날 밤 다시 고달픈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했더니 방문에 '수사기관에서 거처를 안 것 같다'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심리적 안정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씨는 아직 어머니 산소도 찾지 못했다. ■

임수경 방북 배후 정은철 '육성녹음'

"공안세력 포로는 싫었다" '창살없는 감옥' 도피 4년

임수경의 방북이 알려진 89년 7월 이후 경찰과 안기부요원이 박종렬과 나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종렬은 임수경씨와 관련된 일을 처리했고 나는 방북 경로를 마련해준 '배후 조종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6공화국 공안사건 관련 수배자 69명이 '전국수배자대책위'를 구성, 연세대에서 수배의 일괄해제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중 최장기 수배생활자이자 임수경 방북사건 관련자 중 검거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인 정은철씨(29·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휴학)가 자신의 4년간 수배생활을 생생히 담은 수기를 보내왔다 〈편집자〉

정은철씨는 학생운동 사상 최장기 수배생활자이자 임수경 방북사건 관련자 중 검거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사진·조상연 기자〉

내가 '현상수배범'이라는 공식명칭을 얻은 것은 89년 7월이다. 텔레비전·신문·라디오에서는 연일 임수경 평양방문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그 사건과 함께 나의 수배생활은 시작되었다

임수경의 방북이 알려진 직후부터 소위 방북 배후에 대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집요한 추적이 전개되고 있었다. 상황은 긴박했다. 방북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공식수배를 각오하고 있었기에 전대협 내에서 정책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장기 잠수함'(장기 수배) 생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빨리 닥쳐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방북 사건 이후에도 수배자금을 마련한다며 청탁받은 원고를 쓰고 있던 나의 한가한 정세관단은 며칠 후 아침방송 뉴스를 보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내렸다. 당시 평양축전준비위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던 '박종렬'이라는 이름이 평축 참가의 배후세력이라는 딱지와 함께 뒤어나왔다.

박종렬은 같은 대학(연세대) 후배였지만 그보다도 임수경 방북의 실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이기도 했다. 박종렬이 임수경씨와 관련된 일을 처리했고 나는 방북 경로를 마련하는 일을 했다.

TV에서 박종렬의 이름을 본 이상 안이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몇가지 옷가지만 챙겨 정처없는 수배생활에 오르게 되었다. 학생운동 사상 최장기로 기록된 4년간의 수배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가짜 신분증과 생활자금 마련에 실패

모든 경찰과 안기부 요원이 박종렬과 나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미 전국에 수배전단이 뿌려진 상태였다. 버스터미널 등 곳곳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수배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은폐할 수 있는 가짜 신분증을 마련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초기의 생활을 안정시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양자에 모두 실패하였다.

수배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골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께서는 대략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일단 숨어지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울음섞인 부탁을 할 뿐이었다. 당시 나는 그것이 내가 듣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귀던 여학생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깊이 신뢰하였지만 쓸쓸히 전화를 끊으며 격한 감정을 어찌할 수 없었다. 연락하면 연행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근거지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생활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겠지만 특히 신분증 없는 공식수배자의 경우 그 심리적 불안과 긴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주로 심야 만화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만화방에서 잠자기가 죽기보다 싫은 날은 학교 후배에

계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그들 모두 나 때문에 이미 고초를 겪었거나 혹은 하룻밤 나를 재워 줌으로써 연행당해야 하는 처지였다.

한번은 '대순진리교' 사무실에 빌붙어 자려는 속셈으로 알고 있던 교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결국 잠도 못자고 밤새 설교만 듣다가 새벽 3시에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 끝에 약소하지만 박종렬과 함께 전주에 '안전가옥'을 얻게 되었다.

전주에서 가장 처음 얻은 직업은 레스토랑 웨이터였다. 3개월 정도 해나가다 생활고 해결을 위해 아예 주방일로 자리를 옮겼다. 일년간 주방생활을 하다보니 요리에도 자신감이 붙었고 1년이 지났을 즈음에는 전주 컴퓨터 직업훈련원에 입소해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기도 했다.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생활일지 몰라도 수배자치고는 그지없이 안정된 생활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91년 추석이 조금 지나서였다. 90년말부터 분가해 대전에서 살고 있던 박종렬이 고향인 청주 터미널 근처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수배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중 두번째인 연고지 접근금지를 어긴 것이다.

그가 연행된 사실을 이틀 후에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나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방세보증금·생활용구·옷 등을 그냥 남겨둔 채 거의 몸만 빠져나오다시피 했다. 그것은 수배 이래 최초로 겪는 크나큰 상실감이었다.

'모천상' 알고도 못가본 '도바리' 서러움

박종렬의 연행으로 인한 도피는 실제 상황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같이 지내는 사람과의 연락 실수로 '민방위연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전주생활 이후 수원 근교에서 새롭게 시작한 수배 2기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첫번의 타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방도 얻고 직장도 구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92년 1월 중순경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차라리 감옥 안에서였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배생활에서 상을 당한 사람의 고통은 이중고일 수밖에 없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축한 돈 50만원을 어머니 수의라도 해드리라고 아는 분을 통하여 전달하는 정도였다.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다.

집에 돌아와보니 문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지금 있는 곳이 알려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조문하러 간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나는 직장도, 거처도, 밀린 월급도 모두 포기하고 곧바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충격은

전국수배자 대책위는 8월9일부터 연세대에서 6공 정치 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내 수배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었다. 이후 나는 급격히 식욕이 감소하여 몸무게도 7㎏ 이상 빠지게 되었다.

92년부터는 그때까지 전혀 연락을 끊고 지냈던 지금의 아내와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광명시의 한 교회에서 아는 목사님의 주례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양가 부모님도 참석하지 못한 채 수배된 동료, 몇분의 선후배만이 올 수 있었다. 그녀는 당시 모 방송국의 구성작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결혼은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은 곧 그녀가 나처럼 예전의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수배생활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혼 이후 나의 수배생활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생활을 모색할 수 있었다. 못다한 컴퓨터도 계속 배우고 학원의 수학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 2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곧이어 임수경 방북사건 관련자들인 임수경·임종석(당시 전대협 의장)·박종렬 등이 차례로 풀려나왔다. 이들은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수배자였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발대식에서였다. 실로 4년 만의 상봉이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것은 서로 입 밖에 내어 말하기에도 벅찬 것이었다.

그들이 감옥생활을 했다면 나 역시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해왔다. 오히려 수배생활을 하느니 빠른 시일 내에 형을 살고 나오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나 역시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수배 당시에 내 생각은 연행이 됨으로써 조직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내가 공안정부의 포로가 된다면 그것은 싸움에 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정처없는 수배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처음 수배자가 되었을 때 나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반드시 새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가 되면 자연히 수배도 해제되리라고 생각했다.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95년에는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희망이 있었기에 수배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나는 그러한 낙관적 전망 대신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정치수배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배자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음지에서 다시 밝은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농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더이상 어두운 지하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이 6공 정치수배자들의 한결같은 결심이다. NM

수배자 가족의 포옹 수배돼 쫓기는 자의 가장 큰 아픔은 그리운 가족과의 생이별이다. 28일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수배자 아들들을 만나 얼싸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얼굴에 기쁨과 안타까움이 엇갈린다. *김선규 기자*

보 도 자 료

1993년 8.28 15:00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

내용: 5년만에 가지는 정치수배자들과 부모님들과의 상봉

1.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27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8월28일 15시에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 농성장에서 6공 정치수배자들과 부모님등 40여명과 함께 상봉을 하고

2. 지난 6공시절 정치수배로 인하여 가족과의 연락이 끊이다가 다시 가족과 상봉을 하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3. 정치수배자들 중에 정은철(연세대 85학번 임수경 방북사건 배후조정 혐의)씨는 5년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 못다한 이야기 꽃을 피우는가 하면 대책위 위원장 조정신(89년 전전남대 총학생회장)씨는 수배 기간중 아버님의 부음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족을 만나 아버님의 부음에 가지못한 불효로 눈물로 통탄했다.

4. 또한 6공 정치수배자들은 가족과의 상봉자리에서 군사정권시절의 정치수배가 문민시대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유감이라 표현하며 가족과 함께 대책위를 만들어 계속 부쟁해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다.

5. 또한 9월 7일 가족과 해당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범국민 촉구대회"를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당일, 5개언론사에게 취재 했는데 대부분 사진처리 기사로 났습니다. 단일선거도 100만원에 더모았는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의도로 판다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압력을 가해 오고있다.
당일 모임에는 유가협, 민가협 어머님들도 10여분이나 참여 했다

취/재 요/청/서

제 930827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

(TEL, FAX: 361-3664)

발신일: 1993.8.27

내 용: 5년만에 가지는 수배자들과 부모님과의 상봉

1. 지난 8월 9일 전국의 6공시절부터 정치수배를 받고 있는 정치 수배자들이 모여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철폐"를 목표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위원장 조정신 27세 前 전남대 총학생회장)를 결성하고 11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지금까지 17일째 농성투쟁을 연세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2. 저희들의 대부분은 6공 군사정권에 의해 내려진 정치수배로 인하여 몇년간 부모님과의 만남을 갖지못하고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3. 그러나 부모님을 뵙지 않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기에 아직도 수배자이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을 아래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일시: 1993.8.28(土) 오후 3시

장소: 연세대학 학생회관 4층

4. 지난 시기 군사정권이라는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인륜적 도리마저 유린당하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치수배는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정치수배를 일괄 해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며 해제조치 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한국 창조라고 믿습니다.